
2023년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록

□ 심의개요

- 일 시 : 2023. 2. 23.(목) 14:00
- 장 소 : 시청 영상회의실(본관 2층)
- 참 석 : 위원 12명
- 주요내용 : 미술작품의 가격, 예술성, 건축물과의 조화 등 심의
- 심의안건 : 4개소 6작품(조각 3, 회화 3 / 신규 3, 재심의 3)

□ 심의결과

- 6작품 중 가결 4작품(조건부 4 / 권고 1) , 부결 2작품

연 번		설치장소	종류	작 품 명	작품 이미지	심의결과		비고
건물	작품					가결	부결	
1	1	중구 유동 19-19 외 4필지	회화	명경지수		○		조건부
	2		회화	빛과 갯벌		○		조건부
	3		회화	우리들의 이야기		○		조건부
2	4	청라동 94-1번지	조각	MOVEMENT OF BREEZE		○		조건부, 권고
3	5	서구 불로동 불로지구 9블록 1, 2로트	조각	선물같은 인연			○	
4	6	계양구 작전동 296-2번지	조각	Silent Memorial			○	

□ 회의록

사회자

안녕하십니까. 문화기반팀장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차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을 좌석 순서대로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참석인원은 총 12분입니다.

다음은 오늘 심의 안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하실 작품은 총 4개소 6작품이며, 조각 3작품, 회화 3작품입니다. 이중 신규는 3작품, 재심의는 3작품입니다. 전체적인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의안건 총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점수표 작성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중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 채점표를 보시면, 각 5개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이 만점이며, 70점 이상이면 적합, 7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적합” 판정이 과반수인 경우에 해당 작품이 가결됩니다. 채점시 70점 미만으로 부적합 판정을 내리실 경우에는 채점표 하단 비고란에 그 사유를 분야별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과반수이상 찬성하여 가결된 작품 중 특별히 안전성, 도시미관 등의 사유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 또는 “권고사항”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집계 후에 위원님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서 원안 가결을 할 것인지 조건부 또는 권고 가결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게 되며 해당 사유에 대한 의견 동의가 과반수 이상이면 가결됩니다. 참고로 “권고사항”은 군구와 심의신청인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종료되지만, “조건부 가결”의 경우는 향후 조건부 이행 여부를 심의위원님들께 서면을 통해 재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녹음하고 회의록을 작성하고 있는데 정확한 회의록 작성을 위해위원님들께서 마이크를 가까이 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오가는 모든 대화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 외 나눠드린 사전심의서와 출품 및 심의이력 자료를참고하여 심의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심의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주요 변경내용에 대해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장님의 인사말씀과 함께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겠습니다.

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건축물 미술작품은 도시환경 개선과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가들에게는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인의 전공 분야뿐만 아니라 주변과의 조화나 공공 미술로서의 역할 등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하시어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이 선정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의에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의 작품은 총 6건입니다.

심의위원 총 12명 중 12분이 참석하시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3년 제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예술작품 심의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오늘 회의 진행 순서는 작품채점, 집계 결과발표, 심의의결서 작성, 폐회선언 순으로 진행됩니다. 작품 채점 순서는 작품별로 심의도서 검토

후 공개질의, 위원별 채점 순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작품 회의에서는 6작품을 심의하게 됩니다. 순서는 신규 안전 먼저하고 재심 안전은 그 다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미추홀구 용현동 627-12번지 일원

1) <공간놀이_Dream>

위원장 첫 번째 작품 <명경지수>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1번, <명경지수>는 ...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시면 제가 지명을 하겠습니다. ○○○ 위원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 아, 네. 여기 그 사전심의서 취합본을 보니까요. 그 설치위치가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안내하시는 분.

사회자 글썄요, 저희도 일단은 설계도서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 외부에 지금 관계자가 대기할 수가 있는데 혹시 그 관계자를 불러서 한번 오셨으면.

○○○ 네, 네, 네, 한 번 알아보주시면.

○○○ 예.

○○○ 이거는 도면을 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아요. 주차타워 내부에 차를 파킹을 하고 이제 밖에 나와야 되는데 엘리베이터하고도 관계가 없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아마 초기 위치가 그러니까 지상 1층하고 지상 2층이 좀 차이가 있는 걸로 보여요, 위치가. 그래서 아마...

사회자 관계자께서 참석을 하셔가지고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예, 작품이 설치되는 곳이 그 주차타워 인가요?

관계자 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 엘리베이터 앞은 우리가 여기 표기돼 있어서 알겠는데요.

관계자 네, 네.

○○○ 여기 우리 저기 사전심의서에 이제 보면 이제 작성하신, 우리 심사위원님들이 작성하신 내용 중에 주차타워라는 말이 있어서

관계자 네.

○○○ 저는 사전심의서를 작성하면서 주차타워라는 것을 인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위치를 좀 알고 싶어서. 엘리베이터 옆이라는 거는 저희도 알겠는데요. 이 건물 자체가 주차 건물인지 아니면 일반 오피스텔 건물인지

관계자 아, 네. 그 제출하신... 저, 그 제출하신 그 도면 그대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음, 그러면 저기 지금 화면에 나와 있는 저 아래쪽에 네모다란 것들이 차량을 그려놓은 건가요?

관계자 네, 네, 네, 그렇습니다.

○○○ 아, 그러면 그 차량이 이제 건물 밑의 층에 있는 그냥 일반 오픈된 차량인지 아니면 건물 안에 있는 주차장인지를 몰라가지고요.

관계자 아, 네. 그거는 이제...

○○○ 확인이 잘 안 되나요?

관계자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제가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계자 네, 네.

○○○ 이 기록을 제가 심의도서를 보면서 제가 발견을 했는데요.

관계자 네, 네.

○○○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정확하게 지금 엘리베이터 앞에 위치가 되어 있다

고 표시되어 있지만 지금 아마 오기로 된 것 같아요. 지금 여기가 주차 타워거든요.

○○○ 아, 네, 네.

○○○ 그러니까 이 작품 기본적으로 이 작품 도면을 확대하거나, 이동하거나, 축소할 때 작품 설치 위치도 같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인지를 못한 거죠, 이거 심의도서 만드시는 분이.

관계자 네, 네, 맞습니다.

○○○ 그래서 아마 2층에는 정확히 엘리베이터 위치가 맞아요. 그런데 1층에만 이렇게 다른 거죠. 그래서 아마 심의서류 만들 때 아마 오류를 한 것 같아요. 일부러 이렇게 된 건 아니고.

○○○ 아, 네, 네.

○○○ 예, 오류가 된 것 같습니다.

○○○ 예, 예. 이 설제도 보니 잘 모르겠더라고요.

관계자 아, 네.

○○○ 왜냐하면 작품의 질이나 작품의 크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어디에 걸리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관계자 아, 그럼요. 예.

○○○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혼란이 와가지고 혹시 관계자 분께서는 아시나 궁금해서 불렀습니다.

관계자 아, 예. 변경된 내용은 다 제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여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 보통 심의도서를 만들 때 실제 공간하고 아주 흡사하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관계자 네.

○○○ 그 이미지를 보고 우리가 심사를 하는 거니까.

관계자 네, 네.

○○○ 뭐, 작품에 맞춰서 공간을 변형한다든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관계자 네, 네, 그렇죠.

○○○ 그런 측면에서 좀 궁금했거든요.

○○○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관계자 네, 네.

○○○ 예, 그 건축... 심의도서의 건축개요 하고

관계자 네.

○○○ 그 심의서류에, 심의신청서에 면적이 다 틀려요.

관계자 아, 네, 그거 바뀐 내용을...

○○○ 혹시 수정하셨어요?

관계자 네, 바뀐 내용을 다시 제출했다고 들었습니다.

○○○ 아, 수정했습니까? 아

○○○ 예, 지금 여기서는 제가 수정된 걸 확인했어요.

관계자 아, 네, 네.

○○○ 예, 그래서 저희가 사전검토 할 때 그 심의도서에 그게 틀려 있어서
혹시나 해서

관계자 아, 네. 그게 잘못 제출 됐다고 하더라고요.

○○○ 예, 그래서 산출 내역은 잘 뽑으셨나 뭐 다 계산을 해봤어요.

관계자 아, 네, 네.

○○○ 심의신청서에 그거는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심의도서도 수정하
면서 아마 오류가 생긴 것 같기는 해요.

관계자 네, 그런 것 같습니다.

○○○ 작가 분께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설치 위치가 차량을...
그러니까 차량으로 가기 위한, 주차장으로 가기 위한 전용 엘리베이터

인지 아니면 이 지금 이 주상복합, 아마 이게 주상복합이죠?

관계자 네.

〇〇〇 그 위에 이제 입주민들이 이용하는 엘리베이터가 별도로 있는 건지.

관계자 아, 네.

〇〇〇 그거 혹시 알고 계시는 거...

관계자 그거는 제가 지금 한번 바로 알아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도면... 저는 그냥 주차타워라고 알고 있고, 저 도면상으로는 차가 있어서 저도 주차 타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〇〇〇 예.

관계자 그러니까 제가 정확한 거는 지금 물어보고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〇〇〇 그러면은 한번 작가님이나 대행사 쪽에 연락을 해보셔서 정확한 위치를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 실수로 해서 오기가 잘못됐다, 이러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꼭 설치해야 된다면 문제 있는 거예요.

관계자 아, 네, 네, 그렇죠. 네.

〇〇〇 여러 위원들이 동의를 하시면, 한번 확인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니까.

관계자 네, 제가 지금 통화를 해보고 다시 들어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〇〇〇 그리고 만약에 심의가 가결이 돼가지고 작품 설치하게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사실 올해부터 이제 검수를 하거든요. 검수를 할 때 이제 정해진 위치하고, 실제 현장 가서 위치하고 또 다른 느낌이 들면 그 검수가 탈락이 되거든요.

관계자 네, 네.

〇〇〇 사실은 실제 현장에 가봤더니 여기는 회화 걸기에 부적절하다라고 판명이 나면 ‘그냥 다른 데다 걸면 되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관계자 네, 네.

〇〇〇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마무리될 때까지 설계도도 정확하고, 위치도

정확하고, 규격도 정확해야 되거든요.

관계자 네, 네.

○○○ 그래서 관계자 되셨으면 이제 자세하게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관계자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잠깐…

서 기 통화하시고, 잠깐…

관계자 네, 네.

○○○ 그리고 나가시고 우리는 작품 심의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럼 설치 위치에 관한 건 잠시 후에 다시 하겠고 작품에 대한 우리 심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예, 제가 조금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지금 첫 번째 작품을 심의 하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요. 사실 1, 2, 3이 같은 건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것의 서로서로의 그 관계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건물에 세 작품이 들어갈 경우에는 사실은 그 세 작품이 어디에 들어가는지에 대한 뷰가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그거를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지 못해가지고, 개별 작품의 위치만 확인하는 바람에. 지금 1작품의 작품 2가 다 같은 엘리베이터 앞이라고, 1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서로 붙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위치가 지금 제대로 파악이 안 돼가지고 작품의 가로 작품, 세로 작품의 경향이 그곳에 적당한지 아닌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좀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지금 보면 보통 이제 지상 건물의 높이가 있을 텐데 작품 첫 번째는 가로로 길고, 두 번째 거는 세로로 긴데. 세로로 길 경우에 저게 200호가량이 되거든요, 길이가. 그럴 경우에는 이 바닥에서 천장까지 거의 닿을 텐데 어떻게 그 벽의 크기에 비해서 작품이 과다하게 큰 건 아닌가, 그게 약간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작품 자체하고 작가들만의 자기의 작품세계를 표현한 거니까 작품의 완성도는 좋다고

됩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공공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공간에 배치 될 때는 그 공간에서 그 작품이 어떻게 보여지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좀 과제로 남아 있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죠.

○○○ 예,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네, ○○○… 예.

○○○ 지금 사용 예정일이 3월 25일인데 이제 한 달 좀 남았거든요. 그러면 이미 작품이 제작되어진 거라고 보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을까요?

○○○ 그런데 보통 이런 상황에서는 급한 상황을 급하게 접수하게 되는 상황 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요, 그 작품이, 작품을 가지고 있는 작가를 선택하게 하는 면도 있더라고요. 왜냐면은 가결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가결된 다음에 그림을 그릴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그러면 그것도 이제 접수하는 분들 입장에서 아니까 바로 작품을 투입시킬 수 있는 그런 작가를 선정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 같은 거 갖고 아마 접수했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시면…

○○○ 제가 한 말씀…

위원장 예.

○○○ 예. 설치 위치 부분이 문제가 좀 있네요. 이건 뭔가 그쪽에서 완전히 뭔가 해석이 있어야 할 거예요. 파킹 타워 안에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어요, 현재 보니까. 제가 도면은 뭐 정확하게는 안 봐도 이 정도 좀 볼 때 잘못 위치를 표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이게 임박하다 보니까 기존 아까 ○○○ 위원님 말씀 따라 기존 저 있는 작품을 올린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랬는지 작품 제목이라든가 <빛과 갯벌>도 3개가 이

제 같이 있는데, 그것이 유사한 작품인데 저희가 회화 부분에 심의위원님들께서 좀 이거에 대한 유권해석을 좀 내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같은 일관성 있는 같은 작품들을 이렇게 할 때 과연 명제까지, 명제까지 똑같이 다 가야 되느냐. 명제 1, 2 이런 식으로 좀 표현하는 게 맞지 않나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가져봅니다. 그리고 작품 제작이 기술적으로는 좀 됐더라도 원래는 제작, 조그만 소형 작품을 해 놓고 다 완성 작품을 이 심의를 통과된 뒤에 그리는 게 그게 적절하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기존 작품을 하게 되면, 먼저 작품하고 과연 다른 것이 어떤 건지. 여기 <명경지수>라든가 이것도 기존 적으로 설치했던 작품과 제목이 다 똑같아요, 보니까 그분이. 그리고 뒤에 딸린 그 <빛과 갯벌>도 똑같고. 전년도에 이제 보니까 심의 됐으면... 우리가 이걸 짚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이렇게 설치 되면 다른 타인들이, 오고 가는 많은 분들이, 관람객들이 볼 때 이거에 대해서 ‘심의위원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심의했느냐?’ 이런 욕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러니까 뭐 명제를 조금 변경을 시키는 조건으로 하든지 또 거기에 그 색을 조금 바꿔준다고든가 뭐 이런 그 어떤 조건을 걸어줘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거에 대한 회화 전문 위원님들께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어떨까.

○○○ 예, 제가 부연 설명을 잠깐 드릴게요.

○○○ 네, 네.

○○○ 사실 <빛과 갯벌>, <명경지수> 이런 작가가 자기 작품의 명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사실 그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후에 일련번호를 붙인다고 해서 이제 그 부주제 같은 제목을 붙여주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똑같은 제

목이어도 작품이 다르면 또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제 작품 이미지도 유사하고, 제목도 비슷하고 이럴 경우에는 아마 권고조치가 필요할 거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작가가 작품 할 때마다 작품 제목을 다 바꿔야 되는 건 사실 좀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고요. 작품 명제가 같은 거는 별로 문제가 없고요. 이미지가 조금 달라지던가 아니면, 부제가 좀 달라지든가 해가지고 좀 구별을 하면 되니까 이거는 작품의 사실 퀄리티하고는 큰 문제가 없는 내용이라서 아마 이런 것은 권고사항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 그 작품 1과 2의 설치 위치가 그 오기로 인해서 이제 엘리베이터 홀 내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면 현재 두 작품의 사이즈하고 그다음에 출입문... 지금 아마 여단이인가요? 여단으로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에 보면 작품이 2개가 붙거나 아니면 규격이 아마 이 벽면을 넘어설 그럴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그래서 하나를 새로 한 걸까요?

○○○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작가 분 얘기를 들어봐야겠죠. 이게 왜 지금, 아마 벽면에 사이즈가 안 나와서 이렇게 한 건지.

○○○ 아

관계자 아, 네. 아, 물어보니까요. 이게 지금 지상 2층까지 주차장으로 되어 있고요. 지상 1층, 2층이 엘리베이터 타는 공간, 홀이 있어서 주차장이랑은 별개의 공간이 있다라고 그러시네요.

○○○ 엘리베이터 존이 있고 그리고 나가는 주차장이 있어요.

관계자 네, 네. 그래서 여기는 3층부터 오피스텔이고요. 그거는 이제 건축개요에 보시면 다 적혀 있는 내용이라고 하시네요.

○○○ 작가님, 그럼 작품 1과 2의 규격을 보면 2개 합치면 대략 한 5,800 정도 나오고요. 이 건축물 도면을 보면 옆에 5,250이라는 사이즈가 있어

서 대략 비교를 해보면 여닫이문을 열었을 때 그 벽면 안에 이 두 작품이 겹치거나 아니면 벽면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인데 그거는 혹시 파악이 되신 건가요?

관계자 그거는 이제 현장에서 설치할 때 그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작품이 조금 크기 때문에 살짝 문을 열었을 때 뭐 조금 가릴 수는 있겠으나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〇〇〇 예, 부연 질문 조금 더 드릴게요. 지금 혹시 아시면 저 벽면 길이가 지금 도면으로서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벽면 길이가 어느 정도 높고 그 벽면 높이가 지금 한 몇 미터 정도 되는지만 좀 말씀해 주세요.

관계자 벽면 높이가요?

〇〇〇 네.

관계자 어, 지금 보시면...

〇〇〇 지금 벽면 길이는 여기 주차 타워에 보면 7m라고 되어 있는 것 같아요. 7m.

〇〇〇 가로 가요?

〇〇〇 예, 예, 여기 작품이 걸리는 요 벽면이 7m인 것 같아요. 7m라고 파킹 타워의 P자 앞에 치수가 있네요.

〇〇〇 높이가 그러면

〇〇〇 그럼 높이는...

〇〇〇 높이가 안 나와 있네요.

〇〇〇 사전심의서에 6m라고 여기 적혀 있기는 한데 엘리베이터 존이라서 또 4m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〇〇〇 어, 지금 보시면 7m라고 돼 있는 부분은요. 이 주차타워의 끝에서 끝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작품이 들어가 있는 데, 들어가 있는 위치는

〇〇〇 조금 작아질 것 같아요.

○○○ 그 한참 작습니다. 지금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하시냐면 옆에 5,250이라는 치수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X5하고 X6에 나와 있는 사이에 있는 5,250을 그거를 대략 연필로 해서 이 벽면 사이즈를 재보시면 지금 작품이 그러니까 위치는 좀 오기고 만약에 엘리베이터 홀 안으로 들어가면 문하고 겹치게 지금 돼 있습니다.

관계자 아, 네.

○○○ 약간 작품 사이즈와 벽의 크기와 약간 좀 의심스러운 부분이 좀 있어서 그래요.

관계자 네, 네.

○○○ 좁지는 않은가, 이게 커가지고.

관계자 네, 네.

○○○ 그러면 여기서 오케이 하면 나중에 검수할 때 어떻게 잘못될 거 아니에요, 검수하면.

관계자 아...

○○○ 그런 게 보통 벽 크기, 높이 이런 게 정확하게 치수가 거기에 나오는데 이번에는 그걸 잘 알아 볼 수가 없네요.

○○○ 저기가 파킹 타워 안에 1층이 파킹 타워 안에 지금 설치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것 같은데요. 그걸 이쪽 엘리베이터 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오른쪽?

○○○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파킹타워 안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오기가 된 것 같고 그래서 엘리베이터 홀로 옮기면 사이즈가 더 많이... 예, 예.

○○○ 사이즈가 예, 너무 오버가 되니까 그 위치를 층을 바꾼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관계자 아, 네. 그거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관계자 분께서 질문하실 건 있나요?

관계자 아, 제가 사실 이거... 이쪽에 관계된 사람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철저하게 좀 준비를 못한 부분은 좀 죄송하고요. 오늘 나왔던 내용들은 제가 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작품에 대한 의견 더 혹시 말씀해 주실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 저는 이 도면이 조금 전체가 안 나와 있다 보니까 이 많은 세대가 지금 엘리베이터 2개로 지금 모든 걸 이용을 한다는 게 이걸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이용측면에서 보면 지금 1층이나 2층이나 주차대수가 얼마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가장 이용자가 많이 그리고 우리 그 입주민들이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많이 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작품 위치가 그런 게 좀 고려가 되지 않지 않았나, 이런 판단을 해 봅니다.

○○○ 그러면 권고사항으로 다시 제안을, 만약에 점수가 잘 나오게 되면 그걸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권고사항으로 다시.

○○○ 이게 시간적으로 보니까 안 될 것 같아서 권고사항으로 하되 꼭 지켜주게 좀 이렇게 조치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그런데 권고라는 건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기 때문에 하게 되면 조건부로 하셔야 돼요.

○○○ 그럼 조건부로 하겠습니다.

○○○ 층을 빼기에는 또.

○○○ 층을 위치를 바꿔서 설치하는 걸로 하고 또 두 번째 작품 같은 경우는 조금 색상도 너무 유사하니까 색을 조금 변경시켜주라든가, 작가한테.

- 그런데 작가한테 색을 변경하라, 그런 것도 가능한가요?
- 그런데 너무 그거... 이거 하고 너무 같지 않아요? 전에 했던 작품하고?
- 그러니까 지금 작품이... 작품이... 예, 너무 똑같으니까.
- 예, 예, 같으니까. <명경지수> 작품은 좀 색이 다르더라고요. 신규 거하고.
- 그러니까 <빛과 갯벌> 같은 거는 뭐, 그렇고.
- 그러니까 두 번째 거는 이거 왜, 우리 심의하고도 말을 들을 것 같아요. 이거 그대로 해서 설치를 해봐요.
- 옛날에 조각 작품도 좀 비슷해가지고 한 번 말을 들은 적이 있죠.
- 그러니까 색상이라든가 이런 걸 좀 변경해서 그 뭐, 예전에 루앙 대성당 같은 경우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그런 게 다르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이것도 그 작가가 어떤 의미로 이렇게 똑같이 제작을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본인의 그 저기에 맞게 좀 이렇게 색을 조금 변경해 주는 게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그럼 작품을 다른 작품으로 하라고 그래야지.
- 일단은 이거 시간적으로 안 되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 그리고 하나 제안 좀 하겠습니다. 심의서류 만들 때 특히 이런 공간적인 거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그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평면도만 해서 보면 정확하게 이미지의 크기가 이런 것들이 없으니 입면도도 하나 첨부하는 것도 괜찮을 법도 합니다. 왜 심의도서 안에 전체 입면도 하면 이미 인테리어 도면이 다 나와 있으니까 그럼 작품이...
- 그거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요?
- 입면도는 없는 것 같아요.

- 이견 평면도만.
- 예, 평면도만 있지. 그러면...
- 아니, 그러니까 작품 감상하는 사람하고, 벽면하고, 작품 설치하고 그 실제 사이즈를 갖다가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심의도서 때 내놓는데
-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지금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정확하게 벽면 길이를 모르니 이 작품이 양쪽으로 걸렸을 때 너무 붙어 있는 거 아니냐, 문을 열면 1m 정도가 또 빠지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품이 걸 수 있는 위치가 4m 정도 남짓한데 이것을 지금 여기서 연필로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입면 사이즈가 있으면 왼쪽에서 몇 센티 떨어지고, 오른쪽에서 몇 센티 떨어지고 작품이 어디에 위치하고, 이런 게 있으면 딱 보기도 좋고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입면도만 하나 첨부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요.
- 위원장 예, 그 내용은 여기 시에서, 이렇게 시에게 제안하는 걸로 하고. 더 이상 <명경지수> 작품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그럼 말씀이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을 마치셨으면 집계를 위해서 채점표를 책상 우측에 놓아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1. 중구 유동 19-19 외 4필지

2) <빛과 갯벌>

- 위원장 네. 다음으로 2번 <빛과 갯벌>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2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그러면 작품에 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작품은 저는 여기 보니까 그 22년 10차 때 나온 작품하고 너무 유사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작품이 이렇게 보면 지금 이 작품은 컴퓨터로 만진 것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작품을 어떤 컴퓨터를 살짝 손 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서 너무 작품이 유사하지 않나, 어떻게 이거 커다랗게 변동사항을 줘야 할 것 같은데요, 작품이. 이걸 끼워 넣기 하려고 급하게 만드신 것 같기도 하고.

○○○ 컴퓨터로 만졌다는 건,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 그러니까 기존의 작품을 갖고 여기서 이렇게 보면 터치가 화이트 톤으로 해서 포토샵으로 살짝 살짝 굵은 느낌이 들고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림을 살짝만 좀 변경시켜서 이제 이게 통과가 되면 이걸로 갖다가 이제 만지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 아, 그렇죠. 원장이 없는 것 같으니까?

○○○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 22-10차에 보는 그림을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컴퓨터상에서 살짝 거기서 손을 댄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렇든, 안 그렇든 간에 그 작품하고, 이 작품이 너무 유사하다는 거죠. 같은 작가여서 유사한 그림이 나오는 건 당연하지만 예를 들어서 뭐 해의 위치라든지 지금 베이스에 깔린 그 색깔이라든지 지금 너무 익숙하지 않나. 그리고 문에 이제, 이제 구름인지, 안개인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이 작가 의도한 게 이것조차도 좀 유사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작품 작업하시는 분이 시간이 급하니까 원래 기본 작품을 갖다가 손을 살짝 대가지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뭐 제 추측일 뿐이고. 근데 그림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번 조각에서도 비슷한 유형이 나와 가지고

뭐 크게 논란이 한 번 된 적이 있는데 이거 심의위원으로서 좀 약간 피해 가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작가 보고 이제 다른, 다른 작품을 갖다 대체하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사실 저희들이 뭐 심의하는 거에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 따라 다른 작품을 해야된다는 것까지 작가한테 말이 들어가는 건 좀 그렇고요. 여기 나온 거 가지고 우리 가부를 결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작품이 좀 너무 유사하고 보통 작가들이 자기 작품 세계 펼치다 보면 시리즈 개념으로 이제 비슷비슷한 게 많이 나오는 건 사실이지만 그거는 이제 작가의 그런 작품 활동 자체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런 공공 미술 쪽으로 작품을 제안할 때는 그 정도의 변화 있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사실 있는데 그런 최소한의 것을 고려 안 하는 거가 문제죠. 똑같이 유사한 작품 그리는 거야 뭐 사실 죄도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자기 작품이 공공미술로 제한이 될 때 너무 똑같은 게 나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작가들이 스스로 좀 해줬으면 하는 거죠. 같은 계열의 작품이라도 약간의 그 베리에이션(Variation)이 있는 게 조금 보기 좋은데 지금 심의위원들 말씀은 너무 유사하다라는 것이 엄밀하게 보면 우리 이 심의 밖에서 볼 때는 뭐 욕될 일이 아니지만 우리 이제 공공미술 쪽에 영역에 들어올 때는 그 작가의 작품을 여러 개 보더라도 조금 다양한 작품을 보고 싶은 게 사실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너무 유사한 거는 조금 배제돼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위원장

예, 또 다른 의견.

○○○

아, 이분 작품이 보면 5년간 건축 미술작품 심의 이력이 있는데 거기 에 보면 1번하고 2번도 갯별 1, 2 그래서 이게 뒤에 보면 섬 자체에 이것도 변화를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를 들어서 조건을 줘서

변화를 주든가 그걸 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보내주면 그걸 갖고 승인을 해준다는가 이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간적으로 다음 달에 사용 승인이 있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재심의를 한다면 부결을 시키면 저기 있는 작품 3점을 다 설치를 못합니다.

○○○ 그럼 예, 그...

○○○ 이게 지금 국회에 계류가 돼 있는데 한 건물의 작품이 3점이 점유를 할 때 다 통과되고 하나만 통과가 안 돼도 전부 설치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 예, 예, 예.

○○○ 그래서 그 부분을 경기도나 다른 데서 법적으로다가 국회에다 올려서 지금 거기에 계류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경기도 심의위원회에서.

○○○ 그러니까 우리 위원회는 어쨌든 작품에 좋은 작품, 안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가려내고 평가해가지고 심의해서, 평가해서 올리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건축적인 이런 것까지 우리가 고려를 꼭 해야 되는지는 이것도 또 토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위원회의 목적은 좋은 작품을 선별해서 시민에게 좋은 작품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능과 목적이기 때문에.

○○○ 작품 자체, 이 작가는 작품 자체가 좋고 보기에 좀 좋으니까 여기에 대한 변화를 좀 줘서 해주는 게 어떨까라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네, 그럼 조건부로 해야죠.

○○○ 예, 예.

○○○ 그런데 원래 미술작품이 착공 후 30일 이내에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게 준공까지 끌고 왔는지 그것도 좀 의아스러운데요.

○○○

예, 글썄요.

○○○

그거는 사업승인 조건에 명시가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준공이 임박했다고 해서 이 작품을 무조건 그냥 그 시간에 맞춰서 해야 된다? 이거는 작가의 문제가 아니라 건축주의 문제예요.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이걸 지금까지 끌고 갔다는 것도 좀 너무 지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

예, 그래서 조례에도 3개월, 90일 안에 미술 작품 서류를 제출해야 된다고는 되어 있는데 이게 강제가 아니라 권고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안 지켜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건축 같은 경우는 이제 소규모의 건축주들은 이런 상황도 모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특히 시에서 건축허가 신청을 받을 때 인지를 했으면 하는 거고요. 일부 구에서는 아예 건축허가 낼 때 이런 걸 명시를 하더라고요. ‘허가를 낼 때 90일 이내에 단체장에게 심의서류를 제출해야 된다.’라고 명시는 되어 있는데 또 일부 구는 또 안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아마 조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거 작가 보호 차원에서도 이게 필요한 거거든요.

사회자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검수단 관련해가지고 군구 담당자 회의를 곧 열겁니다. 그때 한번 군구 담당자들에게 건축 부서로부터 꼭 안내를 좀 해주십사 하고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예, 더 이상 하실 말씀… 위원님 말씀… 예, 말씀하시죠.

○○○

예,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왔었는데요. 작가가 자기 작품의 유사한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작가의 모습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분명히 없는 것 같고요. 대신에 저도 위원님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요. 너무 유사하게 보였을 때 이게 건축물 미술상식품이라는 공공미술 차원에서 접근을 조금 해주시면 어

떨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작가의 작품에서 나온 접근이 아니고요. 이 건 대중적으로 나와야 되는 이제 또 공공미술이니까. 이 공공미술이 유사한 작품이 같이 놓였을 때 어떻게 봐줘야 될 것인가에 대한 접근으로서 이거는 지금 해석을 해주시는 게 저는 가장 좋다고 지금 보 이거든요. 그리고 뭐 아까도 이런저런 말씀 중에 이게 사용승인이 지금 3월 25일 정도입니다. 이 작품이 거의 완성이 되어져 있다라고 보여 집니다. 그래서 다시 그리고 하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 이 그림 위에 조금 더 다른 방식의 뭐 손을 더 대서 바뀌어진다면 그림이 또 이렇게 제한상으로 그림이 또 달라지는 현상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승인을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되니까요. 아마 좀 전체적인 이 작품의 승인의 문제를 놓고 작품의 질에 대한 공공미술에 대한 접근으로 좀 해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자

아, 그러시면 우선은 채점을 하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결과에 의해서 적합으로 나오면 그때 조건을 걸지 아니면 권고로 할지 그때 다시 한번 논의해 주시고 우선 채점하고 그 결과로 판단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네, 일단 채점을 해 주시죠.

(채점 중)

○○○

근데 혹시 우리 시에서는 자기 표절률에 대한 부분은 제한이 없는 건가요? 다른 타 시도에서는 자기 작품의 표절률이 40% 이상일 때는 무조건 부결을 시키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그래서 아까 ○○○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마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사회자 저희는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기준은 정해진 건 없습니다.

위원장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 위원님들이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그런
 결 감안해서 평가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1. 중구 유동 19-19 외 4필지

3) <우리들의 이야기>

위원장 이어서 3번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해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3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위원님께서 의견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 다른 작품들은 이제 정면에 회화가 들어가거나 이렇게 되면 조명 계획
 에 대한 게 별도로 들어가는데요. 조명 계획 보시면 그냥 그림상으로
 만 지금 표현이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작가분이 시공을 안 하더라도 건
 축주 쪽에 작품을 좀 강조할 수 있는 별도의 조명 시설이 있었으면 하
 는 걸 조건을 달던, 권고사항으로 달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혹시 그 위에 할로겐이 3개가 있어서.

○○○ 아닙니다. 그 할로겐은 건축 쪽에서 그냥 표현하는 등이고, 그러니까
 이 작품을 위한 등인데

○○○ 등을 따로 말하시는?

○○○ 예, 별도의 그 어떤 심의도서나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이제 시공 한계를
 구분했을 때 과연 이 건축주가 작품을 위해서 그만한 또 할애를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그런 내용을 달아
 주면 건축주가 조금이라도 신경을 쓰지 않을까. 아니면 별도의 비용을
 작가 분한테 줘서 작품을 만들었으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예, 회화 작품에서 그거 중요할 것 같습니다.
- 예.
- 예, 조건.
- <우리들의 이야기> 작품에 대해서 더 설명, 뭐 의견...
-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 예, 말씀하세요.
- 이 작품의 위치가 벽면에서 일단 밑에서 1,800 정도 떨어지는 걸로 나오는데 좀 높게 달리는... 물론 가로 작품이기는 한데 작품 보는 위치가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올려다봐야 되는 입장이라 조금 작품 크기 이런 게 조금 위치나 이런 것들을 조금 좀 잘못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 네, 그건 이제 갤러리카 이런 데 놓여 있을 때는 분명히 저게 높은데 또 이 공공적으로 봤을 때 그게 이제 사람 손 타고 그러니까 막 높이하고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감상하기에는 좀 높은 위치니까 그런 것들도 권고사항도 제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예,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위원님들께서 작품별로 채점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2. 서구 청라동 94-1번지

4) <MOVEMENT OF BREEZE>

- 위원장 자, 4번부터는 재심의 작품입니다. 4번 <MOVEMENT OF BREEZE>에

대해 사회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4번 작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네, 위원들께서는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 작품은 지금 보도블록 위에 지금 작품이 없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이제 보도블록의 그냥 이 작품이 연결이 되면 작품 주변으로 침하가 다 일어나는, 그래서 지금 통상적으로 이게 작품이 있을 때는 그 습식, 이제 뭐 화강석 판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습식 공법으로 좀 조연을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냥 설치가 되면 아마 작품 주변으로 전부 침하가 돼서 나중에 이제 검수단이 나가면 좀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제 이 조명을 쓰다 보니까, 포인트 조명을 쓰다 보니까 지금 컨트롤 패널이 지금 설치가 되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작은 광장에 지금 설치를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은폐, 엄폐시키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잘 은폐, 엄폐 시킬 수 있게끔 벽면에 매입을 한다든가 그런, 그런 내용은 제가 별도로 첨부할 예정입니다.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

네, 지난번에 부결 사유 보니까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부결 사유가. 뭐 조각 작품으로서의 부결에 대한 것도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작품이 이렇게 지난번에 비교해 봤을 때 새롭게 완전히 교체가 됐는데 어떤 그 부결된 작품에 비해 작품도 많이 바뀌었고 그다음에 어떤 작품 제목과 어떤 조형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향상돼 보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먼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거는 설치 방법에 관한 건데 지금 조각 작품 재심의 들어온 3점 모두 다 작품 설치 방법에 대해서 좀 많이 자료 자체가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혹시나 가결이 되더라도 심의서류를 다시, 설치 방법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제출을 하는 게 좋겠고요. 특히 이 작품 같은 경우는 포인트 조명하고 하부의 지중등이 삽입이 됐는데 사실 그 밑에 지중등이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게 상부에 있는 이 LED 포인트 조명은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부 조명을 제거를 하든지, 상부 조명을 늘리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컨트롤 박스 같은 경우는 아마 어딘가에 숨겨질 것 같기는 해요, 그 지상에 노출되는 게 아니라 어딘가에 숨겨질 것 같기는 하고. 그다음에 저도 이제 작품을 설치하다 보니까 보도블록 위에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기초를 치고 보통 한 15cm에서 20cm 보도블록이 보통 5cm에서 한 8cm 된다고 보고 나머지는 사후에, 기초 위에 작품을 설치하고 그 위에 포드 보도블록을 이렇게 까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침하 같은 거는... 그러니까 작품도 제가 대략 크기해서 무게를 정확한 건 아니지만 만약 한 3톤? 3톤 조금 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면 지금 기초 콘크리트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작품 크기로 봤을 때 기초를 좀 넓게 치면 그 정도는 다 커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여기에 개선할 점에도 있는데 아이들이 올라간다는 그런 의견을 주셨는데 이거는 작품을 그대로 한 40~50cm 올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제 얘기는 마치겠습니다.

○○○

네, 감사합니다.

○○○

예, 제가 보기에요 그래픽에서, 그래픽이 조금 철저히 못한 것 같습니다. 그 바닥에 설치방법에 있어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보도블록에서 바로 올라와서, 그래픽 상으로는 아름다워 보이기는 하는데

이게 실제로 설치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작품에 뭐 품질 자체는 그렇게 먼저 부결된 것보다는 훨씬 더 진일보된 작품으로 보여지고요. 구조적으로 평가서, 사전심의서를 보니까 좀 구조적으로 약간 불안한 시각적 효과가 나타난다고 쓰여 있기도 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설치할 때 특히 유념해가지고 안전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그 바닥재를 어떻게 사용하건 간에 그 기단을 어떻게 만들건, 바닥재를 어떻게 하건, 그 지중등하고 작품에서 발산한 등, 그러니까 빛 측면에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픽 상으로는 그냥 보기 좋게 특별한 어떤 디테일이 없이 표현되었는데 실제로 설치될 때는 이거하고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다 설치된 다음에 검수할 때 그때 조금 더 철저하게 검수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설치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저...

○○○ 네.

○○○ 그 하단 부분에 기초 콘크리트를 설치할 하기 때문에 보도블록이라는 건 겉으로 보여 지는 거지, 이거 침하라든가 이런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런데 이제 단, 보도블록 설치해서 보도블록이 주저앉는다든가 그거는 얼마든지 수정할 수 있고 작업을 해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스테인리스 이 판이 3t이기 때문에 상당히 튼튼한 겁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무게 자체도 견딜 것 같고, 속으로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어린애가 위로 올라 갈수 있는, 150cm 정도 되는데 어린애가 올라탈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있기 때문에 한 뭐, 몇 십 센티라도 좀 약간 띄워주는 게, 더 길게 해줘도 조형적으로 크게 문제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조건

을 좀 달아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 네, 감사합니다. 예.

○○○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연설명을 좀 해드리면 이 침하가, 작품이 침하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이 작품의 기둥이 이제 3개가 있는데, 이 3개가 이제 부정형 타원이지 않습니까? 그 주변에 이제 보도블록을 깔려면 다짐이 돼야 돼요. 근데 다짐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도블록에 약간의 침하들이 엄청 보기 흉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반드시 ** 습식을 하든, 아까 말씀하신 보도블록을 습식으로 붙이든 그걸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작품이 내려앉는다는 게 아니고요, 보도블록이.

○○○ 보도블록이 잘 고정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죠, 건축하시는 분들이 할 때.

○○○ 아, 네. 아무래도 그런 어떤 구조적인 거 같은 거를 아마 토목이나 건축하는 분들과 상의해서

○○○ 예, 이건 작가들의 몫이 아닌 것 같아요.

○○○ 예, 예. 그리고 조각가들은 대부분 그런 서로 간에 건축하는 분들과고 연계해서 이렇게 계산해서 작업 하시고 그러더라고요.

○○○ 예, 예.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이나 이런 거 좀 적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채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점 중)

3. 서구 블로동 블로지구 9블록 1, 2로트

5) <선물 같은 인연>

위원장 네, 채점 마치셨으면 다음으로 5번 <선물 같은 인연>에 대해 사회자에게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5번 <선물 같은 인연>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작품에 대한 의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 작품이야말로 작품 상세설명, 설치도 같은 게 부족하다고 되게 느껴졌거든요. 봤을 때 어떻게 이게 중심을 어떻게 각 파이프가 들어가며, 어떻게 설치되는지가 아예 그 자료가 작품상세에만 잠깐 나와 있고, 설명으로만. 이게 그림으로 없어서 참고하기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보완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 예, 의견 감사합니다. 예, ○○○ 위원님.

○○○ 예, 이것도 심의도서를 검토했는데 심의도서에 있는 건축개요하고 심의 신청서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틀려요. 이것도 혹시 다시 들어왔나요? 수정해서 안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물론 이게 실수라고 보여지기는 해요. 왜냐하면 항상 건축개요 이런 걸 받을 때 건축심의 제출한 그 서류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혹시 설계가 변경이 되더라도 그 자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자료를 받지 못하고 처음부터 애초에 당초에 받았던 그 서류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작가님께서 인지를 하셨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의외로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최소한 그래도 그나마 다행히 그 미술작품의 심의신청서에 있는 건축개요가 다행히 금액이 더 많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런 것 같은 것도 자세히 좀 체크 좀 했으면 좋겠고. 아까 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 조각 작품 3점 모두가 이 미술작품 제작 및 설치 상세도가 굉장히 미흡합니

다. 지금 이 작품 같은 경우도 하나하나 짚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콘크리트 사이즈도 없고, 베이스판 크기도 없고, 서스 2t로 제작을 한다는데 하부에 있는 1, 2, 3... 9까지, 이런 경우는 위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2t로 제작을 한다고 그래도 물론, 맨 밑에 같은 경우는 주름이 좀 있어서 어느 정도 힘이 되긴 하겠지만 나중에 한 1,500, 1,400 정도 만들어 놓으면 꿀렁꿀렁해집니다, 살짝. 안에 보강제가 제대로 안 들어가 있으면. 그래서 보강제 없이도 3t면 충분히 버티거든요. 그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도 좀 신경을 안 쓴 부분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서스 3D 프린팅으로 한 덩어리를 출력 후 분체도장으로 용접을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선생님이 어떤 의도에 대해서 3D 프린팅을 한다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3D 프린팅도 어디에 적용시키는지 그것도 내용도 없고. 그다음에 왜 비싼 3D 프린팅을 해서 작품을 만드는데도 모르겠고. 그냥 일반 스테인리스 스틸로 해서 만들어도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상세 사이즈가 없어요. 큰 사이즈만 있지, 구는 몇 파이로 쓸 건지 그 위에는 뭐 가로가 몇 센티인지, 이런 것들을 좀 기입을 하면 뭔가 좀 더 도움이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배경도 그래요. 건축물과의 조화인데 건축물이 없어요, 다 숲이에요. 이거는 카메라 뷰를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한데 뭐 급해서 이랬을 수도 있고. 이런 사소한 것들을 좀 더 작가님께서 인지를 하셔서 하면 심의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되고 그럴 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아쉽습니다.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마 이 조형물을

○○○ 처음 해 보신 것 같아요.

○○○ 미술관 같은 데서 안 해본 분인 것 같은데. 그런 걸, 예.

○○○ 지난번 제가 이 심의를 했었던 작품인데 그때 지금 처음 그 ○○○ 위

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그대로 또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또 어떻게 가
결이 되는 바람에 그 얘기는 전달이 안 됐어요.

○○○ 네.

○○○ 그런데 문제는 이제 검수단이 활동을 하게 되면 저희가 작품만 보는
게 아니라 작품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유사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
씀하신 대로 그냥 그 어디서 그냥 모듈을 따다가 그냥 아마 이렇게 하
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품 위치에 대한 그 작가분에 대한, 작가분이
고민을 많이 안 하지 않았나, 이런... 그래서 그 의견을 몇 번 제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 예, 혹시 같은 작가입니까?

○○○ 네, 네, 네.

○○○ 그런데 같은 작가인데 왜 심의서류, 심의도서에는 이력서 이게 다 섞
여 있어요. 대행인명의서도 들어왔나 봐요.

서 기 작가가 두 명으로 공동작품으로 했습니다.

○○○ 아, 공동작품으로요? 대행사도 있죠? 대행사도 있는 것 같은데 작품
제작, 설치비용 산출 내역서 보면 대행사 비용이 빠져 있어요.

○○○ 그리고 이 심의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심의도서에 이 작가 약력, 이
게 원래 지금 들어가게 돼 있는 건가요?

○○○ 이거는 선택 사항인 것 같은데.

○○○ 이런 부분들은...

서 기 원래는 심의서류에 약력이 들어가고, 심의도서에는 약력이 안들어가는
데

○○○ 도서에 안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서 기 선택적으로 어떤 분은 넣으시고, 어떤 분은 안 넣습니다. 이게 PDF와
일로 오니까 제가 임의로 삭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자율적인 거죠? 뭐 크게

○○○ 그럼 접수 받아가지고 이렇게 쪽 보고 그런 게 불필요하게 들어와 있으면 전화해가지고 “그거 없는 걸로 제출하십시오.” 이렇게 교정을 해서 전화를 드렸어야 되는 건데 그걸 놓치셨군요.

서 기 규정대로 만들어야 되는데 저희가 홈페이지에도 심의도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게시를 해놨거든요.

○○○ 예, 봤습니다.

서 기 근데 그거를 꼼꼼하게 다 읽어보고 작성을 하시는 작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 많지 않아요?

서 기 예, 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본인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해왔던 대로만 하시는 것 같아요.

○○○ 그게 심의인지가...

○○○ 그런 분들을 반려를 해가지고

○○○ 예, 그럼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 저희 경기도 할 때 저희들은 여기는 안 내주면 경기도는 내요. 그런데 널 때는 엄청나게 꼼꼼하게 다 체크합니다. 그 구에서 보통 해요.

서 기 예, 보통 이거 구에서

○○○ 예, 구에서.

○○○ 접수를 받고 면적이나 이런 걸로 거의 다 확인을 합니다.

○○○ 예, 하다못해 오타까지도 그래서

○○○ 오타까지도 얘기하고. 다시 전화해가지고 “다시 제출해라.”

○○○ 일단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요. 일단 저게 의자로 보이는데 옆에 가. 아까 설치도 봐도 앵커도 너무 허술하게 박혀 있고 애들이 몇 번 흔들면 저거 올라가다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서 어쨌든 전반적인 설

치에 대한 안전성, 설치에 대한 세부도가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네, 설치 상세도가 지금 미비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

지금 여러 가지 지적 사항들을 종합해봐서 제가 또 마지막으로 느낀 점은 순수회화나 한국화, 서양화 또 조각 이런 순수미술 쪽의 전공자가 아니라고 확신이 들고요. 그리고 경험, 조형물을 경험을 많이 안 해 보신 분이고. 그리고 작품의 구성이나, 색상이나, 조형성이나 이런 거 보면 우리 순수 쪽의 미적 감각이 아니고 디자인 계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디자인 계열이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순수 쪽에 베이스가 없는 그런 분이라는 게 여기저기서 목도가 되네요.

○○○

네, 저도 동의합니다, 말씀.

위원장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는 충분히 토론이 됐을 것 같으니까 점수를 채점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점 중)

4. 계양구 작전동 296-2번지

6) <Silent Memorial>

위원장

이제 끝으로 6번 <Silent Memorial>에 대해서 사회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

예, 6번 작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단 저는 그 외부환경을 봤을 때 작품 설치 위치가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라고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옆에 이렇게 파고라 처럼 표현 돼 있는데 이게 재활용품 보관소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하는

재활용품 보관소예요. 이게 그림상으로는 아마 **않는다고 판단해서
여기다 두신 것 같은데. 작품을 여기에다 두기에는 좀 아무래도 좀 부
적합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제가 말씀드릴까요?

○○○ 네.

○○○ 패턴이 좀 단조롭고 조형성이 난해해서 친근감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색상이 일단 거부감을 주고 주변의 환경과 잘 안 어
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형성에서도 빈곤한 느낌을 주고 있고.
그리고 날카로운 게 어떤 그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적으로라
도 위험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작품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네, ○○○ 위원님.

○○○ 조금 전에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작품 설치 위치가, 앞쪽에
웰컴가든도 있고 프라자도 있거든요. 이쪽에도 설치 위치가 상당히 좋
은데 왜 여기에 설치를 해야 되는지, 물론 상의해서 하기는 했겠지만.
일단 도면상으로 봤을 때는 이런 데에 위치가 더 좋지 않나 싶기도 하
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계속 이제 작품 제작하고 설치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작품도 일단 기본적으로 기초 콘크리
트라든지 어떤 베이스 플레이트 이런 것들의 크기가 좀 어느 정도 나
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나와 있지도 않고, 그다음에 작품
안에 이제 골조를, 굉장히 엄청난 골조를 지금 안에다 집어넣었는데
물론 이 정도 굵기는 안 하겠지만 굳이 이 작품은 골조가 필요 없거든
요. 이미 모듈 자체, 유닛 자체를 다 꺾어지게 만들어서 엄청난 힘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할 거는 밑에 이제
좌대하고 작품... 좌대라고 하겠습니다. 좌대하고 작품하고 요 연결되
는 요 부분이 풀링 델 수가 있습니다, 설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요 부

분만 잡아주면 굉장히 튼튼한 작품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도 표기가 안 돼 있고 전체를 다 이런 골조를 넣는다 하면 이거 골조 넣기도 쉽지 않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거 만드신, 서류 만드신 분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세트 앵커는 m24까지만 있어요, m25는 없고. 그다음에 m24만 해도 32파이거든요. 그럼 25파이 정도면 m20인데 이런 것들도 좀 신경을 써서 좀 해야 될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왜냐면 나중에 작품에 문제가 생길 경우 이 방법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작가님들께서 사실 요… 물론 작품 잘 만들고 잘 설치는 합니다, 이 서류대로 아니더라도.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이 서류를 통해서 제작하고 설치해야 되는 게 맞고. 기본적으로 재료를 스테인리스 스틸로 쓴다고 했는데 몇 t로 썼는지도 표기가 안 돼 있고. 하여튼 조금 미흡해요, 많이. 이게 설치 방법이라든지, 제작 방법 이런 것들이.

위원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

사실 공공미술 조각 작품이라고 하는 게 그 작품성만을 가지고 판단되지 않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품 본체 말고 그 주변 것들, 설치 방법이나 공간 여러 가지가 다 조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기는 것 자체도 작품의 문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형 작품 자체를 보면 제가 볼 때는 인체를 추상화하는 그런 고민 같은 게 사실 보입니다, 작품 자체는. 작품성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그것이 이제 공공장소에 들어와서 어떤 장소에 어떤 식으로 설치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것이 좋아 보이기도 하고, 나빠 보이기도 하는데 저 보라색, 퍼플이라고 하는 것과, 위에 작품과 두 개 다가 작품 일진데 그 두 개의 색깔의 충돌이 좀 심하고요. 그 충돌하는 그 양상이 그 주변 공간과는 또 어울리느냐? 거기에서도 약간 부조화가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품설명을 들어보면 위에 유닛으로 연결해서 인체를 응용하는 그런 거는 작품성이 참 돋보입니다, 그 자체로. 그러나 이것이 공간과 채색과 또는 공공미술의 영역에 들어왔을 때의 느낌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심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예, 그 ○○○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어진 건데 예각들이 막 해서 서로 충돌하고 막 튀어나와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공공미술이 됐을 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채점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네, 저 우리 PT를 좀 앞쪽 쪽에 한 번 열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거 앞쪽에 평가받았던 것 하고요, 뒤에서 나왔던 요… 예, 요 장면을 한번 보시면 그때 1심에서 나왔던 부결 사유가 있어요. 여기 ‘작품의 내재된 의미 파악이 어렵다.’ 라는 거와 ‘공공 조형물의 심미성이 아쉽다.’ 라는 부분. 그리고 ‘전반적으로 조형미가 떨어진다.’ 라고 하고 ‘주변 환경과 좀 안 맞다.’ 라는 거고요. 그리고 ‘개인 독창성은 인정하나 공공성이 부족하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적이에요. 이것을 바꿔서 새로 내달라라고 하는 부분이었는데

○○○ 그걸 하나도 안 했어요.

○○○ 예, 지금 어디 정도가 얼마나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여기에 지금 제안했던 부분에서 크게 변화가 없다라고, 지적사항에 큰 변화가 없게 느껴지는 게 저만의 생각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 예, 맞습니다.

○○○ 먼저 번에도 정확하게 위원님들 지적을 해주셨네요.

○○○ 제가 봤을 때는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요.

- 왜냐하면 지금 이분이 여태껏 해왔던 작품들을 보면 상당히 수준이 높은 분 같아요. 예, 지금 그런데 이게 건축 조형물로 나오다 보니까 제가 볼 때 1차 때 심의한 결 내용을 꺾지를 못하고 어느 정도 저기만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이분이 작업을 이렇게 해놓은 거 보면 상당히 스케일도 있고 그거 뭐야 참, 좋은 작가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 그래서 저는 이제 그전에 작업을 했던 걸 갖다가 갖다 났으면 오히려 더...
- 그리고 또 설치위치도 또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로 좀 뭐, 수정을 하든, 보완을 하든 그건 이제 점수가, 일정 점수가 됐을 때 그건 또 우리가 제안 뭐 권고사항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자, 채점을 해주시죠.

(채점 중)

집계결과 발표 및 조건부, 권고 논의

- 위원장 예, 집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가결 작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결은 안건 번호 1, 2, 3, 4번, 총 4건입니다. 부결은 안건 번호 5, 6번으로 총 2건입니다. 가결 작품 등 조건부 가결이나 권고 사항 가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명경지수> 같은 경우에는 ○○○ 위원님, ○○○ 위원님, ○○○ 위원님이 의견을 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조건부로 해서 통과하는 걸로 하

했습니다. 그래서 권고내용을 보면 설치 위치, 도면의 공간 속 실물 배치도의 상세자료가 필요해 보이는 걸로 이렇게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설치 위치를 조정하고 작품 2와 겹쳐 설치될 확률이 있으니까 유의하라는 그런 또 의견이 있었고요. 또 ○○○ 위원님 같은 경우는 작품 설치 위치가 적합하지 않으므로 설치 위치 변경하는 조건으로 가결하는 것을 이렇게 제안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하나의 의견이나 이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네, 결국 그 1번, 2번이 같은 층, 같은 공간에 배치가 될 거니까 둘 관계가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예, 설치 상황 자체가.

위원장 예. 또...

○○○ 두 번째 작품은 어떻게...

위원장 예. <빛과 갯벌> 같은 경우에는 ○○○ 위원님이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은 작품 설치 위치 부적합으로 설치 위치 변경을 제안해 주셨고요. 작품의 이미지 색상을 변경해주셨으면 하는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번도 그 작품과 유사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또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개선사항을 좀 우리가 제안을 해서 통과시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들의 이야기> 이 작품도 가결이 되는데 ○○○ 위원님이 그 조건으로 조명 계획을 별도 건축지역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각 <MOVEMENT OF BREEZE> 같은 경우는 ○○○ 위원님이 조건을 제시하셨는데요. 어린이들이 올라탈 수 없도록 10에서 20cm 정도 높여주는 이런 조건을 제안하셨고요. ○○○ 위원님은 작품 기둥 주변 습식 포장을 권고를 했습니다. 조명 컨트롤 박스 위치를 또 조정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런 거를, 그런 제안을 반영을 해서 가결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

○○○ 제가 3번에 대해서 의견을 잠깐 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예.

○○○ 그 높이만 조금 낮춰줬으면 좋겠는데요. 그 작품 설치 높이가 1,800으로 돼 있으니까.

○○○ <우리들의 이야기>요?

○○○ 네, 그게 조금만, 1,600이라도 좀 내려가도 이게 확실히 달라지거든요.

○○○ 네, 맞습니다 가로로 길기 때문에.

○○○ 이렇게, 보게 돼서.

○○○ 네, 네, 네.

○○○ 엘리베이터 내리자마자 이렇게 보게 돼서 사람이랑 눈높이가 확실히
좁.

위원장 예, 예.

○○○ 다들 아크릴, 그 박스 액자가 다들 설치가 되는 건가요? 액자가, 박스
액자.

○○○ 여기 보면 다 액자로 돼 있는데.

○○○ 되어 있으면 더군다나 내려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 그럼 작품 위치를 좀 내리는 걸로.

○○○ 조금만 내려주시면.

○○○ 위치 조정을 하는데 조금 내리는 것으로.

서 기 위원장님. 저희가 이제 이 조건부나 권고내용은 저희가 아예 공문으로
해서 구에 통보를 합니다. 이제 구에서 건축주에게 그대로 전달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할지를 저희들의 동의하에 명문화
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1번부터 확정을 짓

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1번 <명경지수> 조건을 어떻게, 혹시 제안하실 조건이 있으시면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까 얘기 나온 거를 명문화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글로 옮기
면 될 것 같은데.

위원장 예, 그런 거를 명문화해서 건축주에게 통보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
다.

서 기 혹시 이렇게 작성하면 되겠습니까?

사회자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가 의견이 있으면, 조건부 의견이 있으시면 쪽
여기다가 명시를 해서

위원장 예.

사회자 예, 그래서 정확하게 확인을, 위원님들 다 확인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 그러니까 작품 1은 작품 2와 같은 위치에 걸리니까, 같은 공간에. 그 1
은 2를 고려하여 작품 설치 위치를 확실하게...

서 기 제시한다?

○○○ 예.

○○○ 제시하라.

○○○ 2번 작품 설치와 고려하여...

서 기 2번도 같은 겁니까?

○○○ 2번도 같은 게 아니라 같은...

○○○ 예, 같은.

서 기 1만 붙이겠습니다.

○○○ 1번, 거기에, 예.

위원장 또 다른 내용은 없을까요?

서 기 또 다른 내용 없습니까? 1번에서 더 보실 내용.
○○○ 일단은 그렇게만.

서 기 괜찮습니까? 2번 넘어가겠습니다.
○○○ 예, 2번 작품은 아까하고 너무 유사하다는 거를 좀.
○○○ 2번만 그러니까 예.

서 기 혹시 표현 제가 어떻게…
○○○ 타 건축물과.
○○○ 그러니까 22년 10차, 그 10차에 가결된 작품이나 여기에 대해서 다 느
 낄을 좀, 변화를…

○○○ 기 설치작과 유사성을 탈피해야 된다고.

○○○ 유사성을 탈피하는 그 작품 제시.

○○○ 작품 제시, 조건.

○○○ 작품과 차이를 두게 하라고.

○○○ 예, 작품의 차이를 두어라. 이렇게.

○○○ 예, 차이를, 유사성이 아니라.

○○○ 두게… 두었으면 좋겠다.

서 기 작품 제시, 이렇게 할까요?

○○○ 예, 예.

서 기 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 유사성이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차이를 뒤야 된다고. 유사를 이렇게
○○○ 예.

서 기 유사하므로 차이를... 이렇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 예.

위원장 그럼 저 3번 <우리들의 이야기>에 대한 그...
○○○ 작품 높이를
○○○ 작품 위치를
○○○ 위치를 좀 내려서 감상이 용이하게 설치할 것.
○○○ 다음 3번이에요.
○○○ 위치를

서 기 내려서 감상이
○○○ 감상에
○○○ 용이하도록
○○○ 설치.

서 기 설치? 이렇게 하면 됩니까?
○○○ 설치할 것.
○○○ 아까 조명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 아, 조명 그...
○○○ 1, 2, 3번 다 포함 돼요.
○○○ 예.

서 기 다 하면 되나요, 조명?
○○○ 예, 예, 예.

서 기 조명 계획 제출, 이렇게 할까요? 자세한? 상세한 조명계획 제출이...
○○○ 그렇죠, 조명 계획서.
○○○ 예, 3번 같은 경우에는 조명 계획서를
○○○ 그런데 지금 1, 2, 3번이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 조명 설치.

위원장 예, 예, 예.

○○○ 조명계획을 여기 3번까지 다 해야 되니까 작품을 위한 조명 설치.

○○○ 예.

위원장 작품 1, 2, 3 … 아, 그렇게, 예.

서 기 이게 작가 별로 또 통지가 되니까요. 다 따로따로 전달을

위원장 아, 예, 그러시죠. 예.

서 기 또 부가하실 내용 있습니까?

서 기 지금 1, 2, 3번은 다 조건부인 건 다 동의하시는 거죠?

(“네” 하는 위원들 다수 있음)

위원장 작품 4. <MOVEMENT OF BREEZE> 같은 경우에는 작품 기둥 주변 습식 포장.

서 기 4번은 권고입니까?

○○○ 4번도 조건부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 조건부로 해야 됩니다. 예, 조건부.

서 기 예, 조건부. 예, 동의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네, 네.

○○○ 네, 네.

서 기 그럼 조건부 인가요?

○○○ 예.

○○○ 그 작가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 기 이게 근데 이거 자체가 건축주한테 통보가 되기 때문에.

○○○ 건축주가 해줘야 될 부분으로.

사회자 그러니까 설계도서가 변경을 해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 거기에 대한 기초계획이 다 나와야 되니까요.

○○○ 작품 높이 조금 높이고 아이들, 예.

○○○ 작품 높이 올리고.

○○○ 높이 조정.

○○○ 아이들을...

○○○ 안전, 안전성...

○○○ 작품 설치죠, 설치 높이.

위원장 작품...

서 기 작품 설치를 높이를 높인다고 하나요?

○○○ 그 기반을...

○○○ 설치를 높이면 안 되죠.

○○○ 높이를 너무...

○○○ 예, 사이즈 크기를. 작품의 높이를.

○○○ 크기를, 작품의 크기를

○○○ 작품... 예, 이게 좀 높아져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위원장 높이... 예.

서 기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 기단을, 밑에다가 기단을 놓으면 높아지는 거 아니에요?

○○○ 아니요, 기단 놓으면 안 돼요.

○○○ 기단을 뚫고 올라가니까.

○○○ 작품의 설치의 높이가 아니라 작품의 높이를 올리는 거죠.

○○○ 예, 아래 부분. 하단 부분에

서 기 작품 하단부에 할까요, 그러면?

○○○ 예, 작품 하단에

○○○ 그럼 전체적인 밸런스가 어떻게 되나.

○○○ 길이를 높여서 그러면 높이가 몇 센티 정도 올라가니까

○○○ 높여서.

○○○ 몇 센티까지 정해주시죠.

○○○ 그래요. 지금 150이니까

○○○ 150cm 되어 있으니까 아이들의 접근성 차단, 뭐 이렇게 설명을 하면.

서 기 높이를 아예 정해 주셔야

○○○ 20cm 정도.

○○○ 한 20... 한, 한...

○○○ 너무 높였을 경우에...

○○○ 한 300 정도? 3~400 정도는 해야지, 이게 높이가 1,800 나오니까.

○○○ 최소 300 이상. 최소 300 이상.

○○○ 예, 맞습니다.

○○○ 그럼 작품의 비례가 어떻게 될지도 고려해야 됩니다.

○○○ 예, 글썄요. 그거는

○○○ 그 정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서 기 정도로 높일 것, 이렇게 할까요?

○○○ 예, 예.

○○○ 그냥 1,800으로 하면 되는 거야.

○○○ 1,500이니까요.

○○○ 아니, 전체를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 아니요, 하단, 하단.

○○○ 아니, 그러니까 300mm가 표현되는 거예요.

서 기 하단부의 높이요?

○○○ 하단부의 높이로.

○○○ 300mm 이상.

○○○ 그렇죠.

위원장 예, 예.

서 기 300mm로 하겠습니까.

○○○ 네, 네.

서 기 괜찮나요?

○○○ 예. 아까 그리고 또...

○○○ 그리고 그 이유를 써놓죠, 왜 그런지.

○○○ 그 괄호 하고서.

○○○ 예.

○○○ 예, 접근성 차단.

서 기 아이들의 접근성 차단, 이렇게 하면 될까요?

○○○ 예.

위원장 네, 그다음에 작품 기둥 주변의 습식 포장을 아까 말씀하셨습니다.

○○○ 네, 지반에 닿는 거.

위원장 네.

서 기 습식 포장입니까?

○○○ 예, 도로 습식 포장.

서 기 포장.

위원장 그다음에 조명 콘트롤 박스 위치 조정, 벽면 주변으로 조명 컨트롤 박스를, 박스 위치를 조정하도록 ○○○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셨습니다.

서 기 이거 조정 괄호 열고 어디로 붙이면 될까요?

○○○ 벽면 주변으로.

○○○ 네.

○○○ 건축물 벽면.

서 기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장 예.

서 기 괜찮나요, 위원님?

○○○ 네, 네.

위원장 예, 대략...

서 기 이렇게만 표현해도 괜찮습니까? 다 알아보나요, 그러면?

○○○ 네, 그러면 팔호치고 침하방지로 그걸...

서 기 아, 알겠습니다. 권고 없이 다 조건부로?

위원장 예, 예.

○○○ 권고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명 계획에서 그 상부 포인트 등이 든, 하부 지중등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그 지중등 때문에 상부 포인트 등에 의미가 없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으면 좋겠고 만약에 지중등을 제거하면 상부 포인트 등을 지금 17개로 되어 있는데 2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그 부분을.

○○○ 하부 지중등을 제거할 경우...

○○○ 그 아니, 그렇게 되면 지중등을 제거하면, 지중등을 제거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위원님은 상부등을 얘기를...

○○○ 그러니까 상부등이든, 지중등이든 둘 중에 하나를 제거했으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지중등 때문에 상부등의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작가한테 좀 맡겨야 되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지중등을 없애게 되면 상부 포인트 등을 두 배로 늘렸으면 좋겠어요.

○○○ 그러니까 상부등이 사실 조명의 역할이 아니라

○○○ 아니에요, 그거는.

○○○ 작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 예, 작품의 일부예요.

- 예, 그럴 경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제거해야 된다는 말은 좀 그런 것 같은데.
- 아, 그렇습니까?
- 그래서 권고로 했으면 좋겠어요.
- 아니, 방향을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밑에 쪽으로. 위로 쏘는 게 아니라 옆으로 쏘는 방향만 바꿔줘도.
- 근데 제가 볼 때는 상부등이 별로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있거나, 없거나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제가 작가분이면 상부등을 없애면 컨트롤 박스도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권고사항을 따진다고 그러면 4번의 컨트롤 박스도 없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상부등을 없애는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 아니요, 그 지중등 때문에 컨트롤 박스는 있어야 됩니다, 하부로. 네, 지중등 때문에.
- 그런데 이제 양쪽 등이 충돌을 했을 경우에, 밤에. 그랬을 경우에 이제 작품이 어떻게...
- 상부의 포인트 등이 의미가 없잖아요, 이거는.
- 상부에 등을 최소한 낮게 하면 되죠, 그럼.
-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 예,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상부의 포인트 등은 그의 작품의 일부란 말이죠.
- 그렇죠.
- 네, 그걸 갖다가 우리 심의위원들이...
- 조도를 낮추면 되죠.
- 조도를 좀 낮추든가 뭐 해서 그 조명등과 충돌하지 않도록
- 조도를 낮출 것.

○○○ 예.

○○○ 거기에서 작품의 영역 표시가 없는데 그 지중등 같은 게 혹시라도 노출되면 지나가다 부딪히지 않을까요?

○○○ 지중등은 노출이 안 돼요.

○○○ 지중등이, 지중등 노출이 아니고

○○○ 완전히 바닥에?

○○○ 예, 바닥에 다 밀착되어 있는 매립등이에요. 상부등이 아니라 하부등, 지중등이에요.

○○○ 하부등 아닌가요?

○○○ 예, 하부. 예, 하부 지중등. 땅에 매립되는 지중등의 조도를 좀 낮게.

○○○ 예, 지중등.

○○○ 조도를 낮추...

서 기 조도를 낮출 것, 맞습니까?

○○○ 네.

서 기 혹시 여기에 더 하실 의견들 있으신가요?

○○○ 권고니까 뭐, 안 할 수도 있겠네요.

○○○ 예, 예. 권고니까 이거는 의견에 맞춰서 저걸

○○○ 저는 두 번째

○○○ 그 22년 10차 가결 작품 유사한 거, 차이를 둔 작품제시. 하고서는 예시를 두는 게 어떨까요? 예시를...

○○○ 예시라 하면?

○○○ 뭐 색을 지정한다든가.

○○○ 예, 예, 예. 그래서 만약에 그 작품이 시리즈 작품이 되더라도 어느 약간의 지금 변화가

○○○ 예, 예를 들어서

○○○ 배경에 그 6t를 뭐 형태를 바꾸든가.

○○○ 네, 네. 아니, 저렇게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작가가.

위원장 예.

○○○ 괜찮은 것 같아요.

○○○ 알아들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서 기 이견 없으시면 이렇게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 네.

서 기 네, 감사합니다.

○○○ 권고사항에서 저결 의아심을 가질 것 같아서 설명, 그런 설명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상하의 그 충돌 권고로.

서 기 보통 작가들이 부결이나 이제 조건부를 받으면 저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특이사항을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의했던 내용들을 전달을 해줍니다.

○○○ 네, 네.

사회자 아, 이 부분은 회의가 끝나고 별도의 설계도서가 오면 서면심의로 다시 위원님들께 보내드리면 그때 서면심의 하실 때 또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네, 더 이상 하실 말씀 없으시면 심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건의 심의 안건 중 1, 2, 3, 4번은 가결. 그 가결 중에서 네 작품 모두 공히 조건을 부여하여 조건부 가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나머지 5번, 6번은 부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자, 이것으로서 2023년 2차 인천광역시 건축물 미술작품 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봉 3타)

- 녹 취 끝 -